



독룡이 살았던 연못엔 부처님 그림자가 늘 비치고

산 20 울진 불영사(佛影寺)

꼬불꼬불 고갯길에 힘겨워질 때 즈음 일주문이 나타났다. 들판의 벼를 베어내듯 날 선 바람이 숲에 걸린 마른 잎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깊은 겨울에 오고 싶었던 절, 불영사. 꼬박 이틀 쯤 내린 흰 눈이 도랑을 덮고, 그 그림자 비친 은빛 연못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 바라는 인연은 늘 쉽지 않다. 서쪽 산마루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법회를 열고 있다. 바위 모양이 영락했다.

불영사는 651년(진덕여왕 5)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 후에 의상 스님은 다시 돌아와 9년 쯤 머물렀다. 원효 스님도 여러 해를 함께 살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중수와 중건을 거쳤고, 임진왜란 때

는 영산전만 남기고 도량이 모두 소실됐다. 1701년(숙종 27) 진성 스님이 중수했고, 1721년 천옥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못에 차가운 물결이인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엔 독룡이 살았다. 절터임을 알아본 의상 스님은 사나운 독룡들을 조복시키고 이곳에 절을 지었다. 다섯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 불사를 축하했다. 이때 연못에 부처님의 모습이 비쳤으니 절 이름이 불영사다. 절들의 창건 이야기들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필요할 때도 있다. 마주 앉은 마음이 천 년 전의 이야기보다 더 먼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벌레 한 마리를 물었다. 우주 하나

가 사라졌다. 불영사 연못엔 늘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 서산마루에서 법회를 여는 부처님이 늘 연못에 비친다. 불영사 연못은 법당이다. 오늘 밤엔 달빛 아래서 법회가 열린다. 눈이 내리는 날엔 은빛 하늘 속에서 법회가 열릴 것이다. 그 날 다시 오고 싶다. 연못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불영사 연못 앞에서 불 일이다. 사라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연못 옆에 모신 부처님이 멀리 천축산을 바라본다.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바람이 오가고, 연못 위 빛바랜 연잎들이 눈을 감는다. 해가 기울고 서산마루에서 다시 부처님의 설법이 들려온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납초

一人一燭 연꽃밑납양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밑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밑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광 호랑이 양초 연꽃 밑납초 7.0 x 34cm

아광 공 양초 연꽃 밑납초 7.0 x 34cm

육각초 7.0 x 34



연꽃 대 9.5 x 11cm, 연꽃 중 9 x 10cm, 연꽃 소 7 x 6.5cm

밑납연꽃 소 7 x 6.5cm



외끼바

후리자

영원향 정.단(소바리)

우리향,백단향,살중매,인상향,대발향,복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6cm]



주문은 **연불삼!** 02)2004-8216

농림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